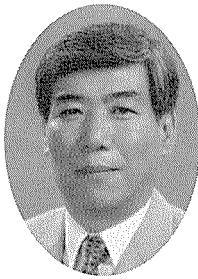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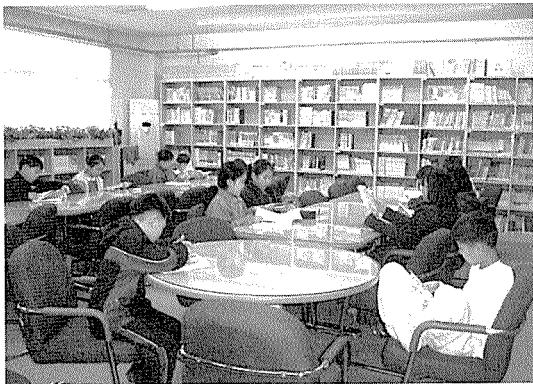


interview



chakawon@hanmail.net

경기도 학교도서관 발전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는 차가원 장학관

Q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최근 교육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서관계로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 반갑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A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주도할 능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 신장교육 등을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1년부터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채택하고 매년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도서관에 정보검색, 자료관리 등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과 사서 인력 확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주요 시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총 예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4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 및 리모델링, 디지털 자료실 운영지원, 사서 인력 지원,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 DLS 운영, 사서인력(도우미 포함)

연수, 민·관 협력사업 전개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의 결과로 학교도서관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과거에 대부분 폐가식으로 운영되던 학교도서관이 완전 개가식으로 변하였으며, 도서실이라기보다는 자율학습실 또는 독서실의 기능을 수행하던 열람석이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활용교육의 장으로 변하였고 정보검색 공간으로 그 기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서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된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올해부터 경기도청이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수행해온 학교도서관 사업을 교육청에서 이관 받아 수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와 2004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A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청이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수행해온 학교도서관 사업(주로 사서 인력 지원 및 도서 구입 예산 지원)이 2004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으로 그 사업 주체가 단일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사업이 2002년까지는 경기문화재단과 각 지역별로 10개의 시민단체들이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차원에서 운영을 담당하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로부터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3년에는 시민단체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경기문화재단 내의 기전대학에서 사업을 수탁 운영하였던 바, 2003년도 경기도청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경기도교육청 이관을 권고 받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경기도청의 사업을 이관 받았다고 하여 사업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경기도청의 사업 예산이 이관됨에 따라 사서 지원 인력이 600명 선으로 증가한 점과 경기도교육청 사업에는 없었던 도서 구입 예산 지원(20억 원 규모)이 추가되고 사서 인력의 연수 기회 확대 등이 작년과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Q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몇 년 간 추진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실 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 2001년도부터이므로 금년이 4년째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2003년도로 금년이 2년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학교장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있고, 학교 교육의 질은 교장의 질적

interview



경기도 문화재단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팀
(<http://kglib.kcf.or.kr/index.asp>)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이러한 학교장의 변화된 마인드가 학교 예산에서 도서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커지게 하고, 이러한 결과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근 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정보화된 교수·학습 도움센터로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모하여 실제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며, 향후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등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Q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사서 인력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사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은 정규 사서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방법과 학교장이 계약직(일용직) 사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교사가 국가직 공무원이라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학교에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계약직 사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용 구조가 불안하고 보수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정규직으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차선책으로 가능한 방법은 현재와 같은 계약직 고용 구조를 유지하는 것보다 학교별로 학교회계 직원으로 채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 구조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Q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도서관 활성화의 핵심은 사람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서인력지원 사업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사서교사 확충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와 같은 개연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저희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서교사(정사서, 준사서 포함) 확충 문제는 교육청 수준에서는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가 학교회계 직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학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Q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시면서 여러 부문에 대해, 특히 도서관계에 대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입장에서 정부나 도서관계, 교육계 등 관련되는 부문에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의 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조언도 해 주십시오.

A 제가 도서관계와 관련이 깊은 교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사람도 아니기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미 지적하신 대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성패의 관건은 사서 인력 확보에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의 해결 방법 강구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만 항구적인 사서 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경기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열린 도서관 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일원화와 일원화 이전이라도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히 조언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교육청과 같은 형태로 사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입니다. 일부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는 대학교육에서도 효율적인 사서 인력 수급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바쁘신 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진행 : 심효정,
shjcap@hitel.net]